

더불어 민주당 정보통신특별위원회		보도참고자료	
보도일시	2025. 3. 17.(월) 09:00	배포일시	2025. 3. 17.(월) 09:00 배 포 즉시
위원장	이정현 (010-7343-4565)	담당자	사무국장 최대혁 (02-6788-6971)

이정현 의원,
세계적 AI 기업 · 석학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소프트뱅크, 사하그룹,
스탠퍼드대, 칭화대 등) **국회서 한자리에 모은다**

**<AI 대전환 속 大한민국의 길 : 세계는 어떻게 준비하는가?>
18일(화) 토론회 개최**

- 이정현 위원장, "전례 없는 규모의 AI 토론회 판 벌여...
세계로부터 지혜 모아 大한민국의 길 찾을 것" -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특별위원장)이 18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AI 대전환 속 大한민국의 길 : 세계는 어떻게 준비하는가?> 토론회를 열고 세계적인 AI 기업인과 전문가들을 한자리에 모은다.
- 미국 스탠퍼드대, 중국 칭화대 석학들과 주한EU대표부, 메타(Meta),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소프트뱅크(Softbank), 사하그룹(SAHA GROUP) 등 기존 정치권에서 열리던 AI 토론회에선 보기 힘들었던 전례 없는 규모와 수준의 인사들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정현 의원이 기획 및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정현, 정동영 의원과 국민의힘 주호영 국회부의장, 최형두 의원, 그리고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이 공동 주최한다. 국가 AI 산업의 미래를 위해 여야가 초당적으로 힘을 모은다는 취지다.
- 토론회는 먼저 AI 기술패권 전쟁의 양대 국가인 미국, 중국 명문대 석학들의 발제로 시작된다. 황승진 美 스탠퍼드대 명예교수, 이우근 中 칭화대 전자공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참여한다.
- 황 교수는 'AI 시대를 준비하는 우리의 선택'이라는 주제로 미국 혁신 성장의 관점에서 대한민국 AI 경쟁력의 좌표와 전략을 논한다. 이 교수는 '한·중 반도체 산업 역학과 반(半)격차 전략의 필요성'을 주제로 최근 중국 반도체 굴기의 현황을 짚어보고 대한민국 AI 반도체 산업정책의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 이어 진행되는 종합토론에선 글로벌 기업인들과 전문가들이 각국의 AI 도전과 성공 경험을 공유하며 최적의 대한민국 AI 전략을 찾는 대담이 이뤄진다.
- 이성엽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장을 좌장으로, Rainer Wessely 주한EU대표부 디지털 연구 담당관, Shane Cahill 메타(Meta) Legislation and Policy Development 총괄,

William Bartholomew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Responsible AI 총괄, 이준표 SBVA(구 소프트뱅크 벤처코리아) 대표, Sorchote Ambhanwong 사하 그룹(SAHA GROUP) AI Representative 등 미국·중국·유럽·일본·동남아를 망라해 세계 최고 기업의 인사들과 전문가들이 토론에 참여한다.

- 국내 AI 관련 정책·법률 분야를 대표하는 학계 전문가들과 주무 부처, 국내 AI 전문 투자회사도 함께 한다. 해외 선도국 경험을 대한민국에 활용하고, 구체적인 제도 개선으로 뒷받침할 방안을 찾겠다는 목표다.
- 송경희 성균관대 교수(前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지원단장), 박기호 LB 인베스트먼트 대표, 김경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이 토론자로 참여하며, 전체 토론회 사회는 홍기범 숙명여대 교수가 맡았다. 송경희, 홍기범 교수는 현재 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특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 토론회에 앞서 이정현 의원은 “지금까지 솔한 정치권 AI 토론회가 있었지만, 정작 세계가 어떤 구체적 전략을 갖고 움직이는지, 각국 현장에선 무엇이 주요하게 논쟁이 되고 검토되는지 생생히 살펴보지 못해 아쉬웠다” 라며 “그래서 국회에선 쉽게 볼 수 없던 전례 없는 규모와 수준의 세계적 석학, 글로벌 기업인들을 한자리에 모아 판을 벌여봤다” 라고 토론회 취지를 밝혔다.

- 그러면서 이 의원은 “대한민국 AI 글로벌 경쟁력의 새로운 도약을 이뤄내기 위해선 정부와 산업계, 학계가 ‘원팀 코리아’로 움직여야 한다”라며 “집사광익(集思廣益)’, 즉 여러 사람의 지혜를 모으면 나라의 이익을 더 넓힐 수 있다는 말이 있듯이 국경의 장벽을 넘어 세계 AI 선도국으로부터 교훈을 듣고, 이를 ‘대한민국의 길’을 찾아가는 밑거름으로 삼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첨부]

1. 발대식 포스터 1부 끝.

AI 대전환 속 **대한민국의 길** **세계**는 어떻게 준비하는가

일시: 2025년 3월 18일(화) 오전 10:00~12:20

장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사회자 및 패널

사회	홍기범 숙명여대 교수
발제	황승진 Stanford University 명예교수 이우근 淸華大學(칭화대학) 전자공학과 교수
좌장	이성엽 고려대학교 기술법정책센터장 송경희 성균관대학교 교수 (前 4차산업혁명위원회 지원단장) 김경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 Rainer Wessely 주한EU대표부 디지털 연구 담당관 William Bartholomew 마이크로소프트 Responsible AI 총괄 Shane Cahill 메타 Legislation and Policy Development 총괄 Sorchote Ambhanwong SAHA GROUP AI Representative (Co-CEO of Bigxshow LALA Co., Ltd)
토론	이준표 SBVA(前 소프트뱅크 벤처코리아) 대표 박기호 LB 인베스트먼트 대표

주최: 국회의원 이정현·주호영·정동영·최형두·이해민

주관: 국회의원 이정현(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

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송통신위원회  NIA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